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군(軍)막사

군부대 막사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4월 행주·신평 군(軍)막사가 문을 열었다. 2018년 군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이래 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한강방문자센터'와 '신평예술창작공간 새들'을 둘러본다.

시민을 위한 착한 쉼터

한강방문자센터(구. 행주군막사)

밀리터리 패턴 디자인을 살린 외벽이 눈에 띄는 3층짜리 건물이 방문자를 반긴다. 행주군막사의 새로운 이름인 '한강방문자센터'는 연면적 562㎡로, 행주대교 진입로와 행주산성로 진입로 사이에 모습을 드러낸다. 마당에는 쉼터를 겸한 정원이 있고, 쾌적한 화장실도 마련되었다. 건물에는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이어져 있다. 3층 전망대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행주대교와 한강평화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건물은 원래 한강하구로 침투하는 무장공비들을 대비하여 경계근무를 섰던 초소였다. 군 초소로 사용하던 시절의 사진과 함께 남겨진 준공기념 머릿돌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머릿돌에는 '1990년 한강 대홍수 시 필승부대 경계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방붕괴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역사적 현장에 조국의 심장부를 지키는 건물을 세운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INFO BOX

한강방문자센터

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23-1
주요 시설 - 1층 : 관광 및 시정홍보실
 - 2층 : 한강관리팀 사무실 및 다목적회의실
 - 3층 : 전망대(예정)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예술을 꽃피우는 작업실

신평예술창작공간 새들(구. 신평군막사)

행주군막사에서 약 3.6km 떨어진 '신평예술창작공간 새들'은 평화누리길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한강방문자센터와 마찬가지로 밀리터리 패턴 디자인이 눈에 띈다.

413㎡의 단층 건물인 이곳은 지역 미술인의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과거 군 장병들이 생활했던 내무실의 구조를 살려 여러 개의 창작공간을 배치했고, 메인 홀은 관객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전시 및 아카이빙 장소로 꾸밀 예정이다.

신평예술창작공간 마당에는 건물의 역사를 말해주는 스토리보드와 과거 사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오가는 이들 누구나 곡선미를 살린 기다란 나무 테이블과 의자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고즈넉한 신평 들녘의 농경지 풍광이 펼쳐진다.



INFO BOX

신평예술창작공간 새들

위치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6-17
주요 시설 - 실내 : 창작활동 작업실 및 전시 공간(5개실)
 - 야외 : 방문자 쉼터

